

제 1 교시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확인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갑: 같을 수 없음은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다는 것이고, 다를 수 없음은 다르면서 동시에 같다는 것이다. 같음은 다름에 의지해서 같음을 변별한 것이요, 다름은 같음에 의지해서 다름을 해명할 것이다. 같음에 의지해서 다름을 해명함은 같음을 분열시켜서 다름을 만든 것이 아니요, 다름에서 같음을 변별함은 다름을 녹여서 같음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을: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人)는 밖에 있으며, 덕(德)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멀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하여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 ① 갑: 인생이 공(空)하다는 허무주의에 따라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② 갑: 한 가지 원인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는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 ③ 을: 자연의 운행에는 질서와 목적이 없으므로 사물의 본성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 ④ 을: 무위를 바탕으로 하여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갑, 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보존해야 한다.

2. 다음 중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인간 영혼의 과정은 현명하게 되는 것이다. 기개의 과정은 활력 있게 이성을 따르는 것이고, 욕망 역시 이성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영혼의 모든 부분이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을: 온전한 삶은 육체와 정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이고, 죽음은 모든 선과 악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 한다. 죽음은 만물의 구성 요소인 원자(atom)로 돌아가는 자연스런 해체일 뿐이다.

<보기>

- ㄱ.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의를 필요조건이다.
- 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 ㄷ. 은둔자적인 삶을 살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 ㄹ. 세계는 원자의 운동으로 형성된 물질로 구성된다.

-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ㄷ,ㄹ ⑤ ㄴ,ㄷ,ㄹ

3. 다음사상가의 견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관념 또는 신념이 참이라고 함시다. 그것이 참이라고 해서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생겨납니까? 그 진리는 어떻게 실현되나요? 신념이 거짓인 경우에 얻어지는 경험과 어떤 면에서 그 경험은 차이가 납니까?

- ① 옳은 것이란 우리에게 현실적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된 지식과 가치에 도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의 가치획득의 충분조건이다.
- ④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⑤ 연역적 추론보다는 관찰하고 실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 병이 서로에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갑: 검소하고 절제하면 크게 성장하고, 사치하고 무절제하면 멸망한다. 부부가 절제하면 천하가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절제되면 오곡이 잘 익으며, 의복을 절제하면 피부가 조화롭게 된다.

을: 의(義)라는 것은 나이 많은 어른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구운 고기를 좋아함은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구운 고기를 좋아 하는 마음도 또한 외재적인 것이란 말인가?

병: 신하된 자가 진언(進言)하면 군주는 신하가 요구한 대로 일을 맡긴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리하여 진언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상(賞)을 주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罰)을 준다.

- ① 갑이 을에게: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여 이(利)를 증진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군요.
- ② 을이 갑에게: 이(利)와 의(義)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군요.
- ③ 을이 병에게: 인의(仁義) 백성을 교화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군요.
- ④ 병이 을에게: 법과 술의 강제적 수단보다 예에 의한 교화를 강조하고 있군요.
- ⑤ 병이 갑, 을에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군요.

5. 다음 갑, 을 사상가의 의견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 오직 신앙만이 진정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 앞에 선 단독자'이며, 신과 마주 대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해야 한다.

을: 개인은 역사적인 조건 안에서만 실존할 수 있다.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필연적 상황인 한계 상황은 인간이 지닌 이성의 힘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 ① 갑: 합리성에 기초에 주체적인 삶을 통해 실존을 지켜야 한다.
- ② 갑: 종교적 단계에 도달하여 신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을: 과학적 탐구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한다.
- ⑤ 을: 다른 사람의 실존적 삶보다 자신의 실존적 삶의 우선성을 인식해야 한다.

6. (가)에서 갑, 을, 병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p>갑 :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p> <p>을 :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p> <p>병 :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과 국가 소멸되며,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p>
(나)	

<보기>

- ㄱ. A : 생산 수단의 공유는 이상 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 ㄴ. B : 수호자 중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 ㄷ. C : 종적으로는 국가가 소멸한 상태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 ㄹ. D :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의 평등 실현은 이상 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중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같으며, 무위로써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과 같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착한 행실만을 신봉하고 실행함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같다.

을: 천지부모(天地父母)의 네 글자는 서로 다르나, 실은 한울천(天)한 글자이니라.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이다. 목숨이 한울에 있음과 한울이 만민을 내심은 선성(先聖)이 이른바요,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 것은 선현(先賢)이 말한 바이니라.

병: 지상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반성과 수행을 통해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을 실현해야 한다.”

- ① 갑, 을, 병 모두 유 불 도 사상과 고유사상이 조화를 강조한다.
- ② 갑의 사상에는 외래 사상에 대한 개방성이 담겨 있다.
- ③ 을은 인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려한다.
- ④ 을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한울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것을 주장했다
- ⑤ 을, 병은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하였다.

8. 갑, 을, 병 사상가가 서로에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갑: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인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반면에 이성적 존재는 인격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의 성질은 이미 목적 자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 및 불행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비명과 신음 소리는 항상 동정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덕이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만, 덕이 없는 행동은 혐오감을 준다. 우리가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 등을 칭찬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병: 관계를 중시하는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감정을 멀리하고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반대로 배려의 관점에서 행위 하는 사람은 자연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감에 호소한다.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측된다.

- ① 갑이 을에게 : 경험적인 것은 모두 도덕의 원칙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도덕의 원칙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 ② 병이 갑에게 : 도덕적 추론을 중시하는 정의 윤리를 버리고 도덕적 감정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 ③ 병이 을에게 : 모든 도덕적 판단은 이성적 추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④ 을이 갑에게 : 도덕은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하나의 진리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갑이 병에게 :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9. 갑, 을, 병 의 입장에서 불 때 (가)상황에 대한 판단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원초적 입장이라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의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나 분배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을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n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에게 n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병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는 없다. 단일한 기본적 가치는 존재할 수 없다.																				
(가)	<p>이 세 명이 농사를 짓고 남은 결과를 분배하려고 한다. 분배의 선택 옵션은 A~D까지로 다음과 같고 현재, 기하, 중현의 기여도의 비는 각각 3:2:1 이라고 한다. (단 분배전후의 양도절차는 없었다고 본다)</p> <table border="1"> <tr> <td>구분 대상</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현재</td> <td>180</td> <td>150</td> <td>130</td> <td>110</td> </tr> <tr> <td>기하</td> <td>120</td> <td>110</td> <td>120</td> <td>110</td> </tr> <tr> <td>중현</td> <td>60</td> <td>80</td> <td>90</td> <td>110</td> </tr> </table>	구분 대상	A	B	C	D	현재	180	150	130	110	기하	120	110	120	110	중현	60	80	90	110
구분 대상	A	B	C	D																	
현재	180	150	130	110																	
기하	120	110	120	110																	
중현	60	80	90	110																	

<보기>

- ㄱ. 갑은 D를 가장 선호할 것이며 그것은 최고수혜자와 최소수혜자의 격차가 적기 때문이다.
- ㄴ. 을의 경우는 B, C, D모두 정당하지 않은 분배로 볼 것이다.
- ㄷ. 병은 A의 분배 후 현재가 재화를 이용해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것에 반대한다.
- ㄹ. 갑, 을, 병 모두 공리극대화를 위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명제에 반대한다.

- 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 ④ ㄱ,ㄴ,ㄷ ⑤ ㄴ,ㄷ,ㄹ

10. 다음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실로 객관적인 도덕법칙만이, 자기에(自己愛)가 최상의 실천 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자기에의 주관적 제약을 법칙으로 지시하는 자만을 끊임없이 몰아낸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의 자만을 몰아내는 일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겸허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도덕법칙과 자기 본성 중에 있는 감성적 성벽을 비교할 때,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겸허하게 한다. 도덕 법칙은 그 관념이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우리의 자각에 있어 사람을 겸허하게 하고, 그것이 적극적이며 규정근거인 한, 그 자체로 '존경심'을 일으킨다.

- ① 선의지에 따르는 도덕적 가치함축의 충분조건이다
- ② 동정심이나 이타심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직접의무로 성립 할 수 없다.
- ④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언명령에 위배된다.
- ⑤ 진정한 자유는 곧 자율(自律)을 의미한다.

11. (가)의 사상가가 (나)의 세로 A개념에 대해 제시 할 견해를 구하시오

(가)	국가는 개인의 경제적, 물질적 필요와 같은 생존의 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의 차원을 충족 할 때 자족적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의 본성이 그 사물의 최후형태 또는 궁극 목적을 실현을 목표로 하듯, 자족적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궁극 목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선의 단계이다.																								
(나)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A)</td><td>(C)</td><td></td><td></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맹자가 제시한 사덕의 종류 (B) 롤스가 원초적 상황에서 제시한 순수 절차적 정의 보장을 위한 제약 조건</p> <p><세로 열쇠> (C) 정치적 □□개념</p>							(A)	(C)						(B)										
(A)	(C)																								
	(B)																								

- ① 목시적 동의와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성립 할 수 있다.
- ② 국가로 받은 수혜에 대해서 보상하여야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 ③ 국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당위 이므로 성립한다.
- ④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여 성립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성에서 기인한다.

12.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다음 중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갑: 곱자와 곁음쇠는 직각의 원의 자극함이요 성인(聖人)은 인륜의 지극함이다. 군주가 되려면 군주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되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하니, 이 둘은 모두 요순을 본받을 따름이다.

을: 성인(聖人)은 위에 있더라도 백성들이 무겁다고 여기지 않고, 앞에 있더라도 백성들이 해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즐겨 추대하고 싫어할 줄 모른다.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 다퉴 수 없다.

- ① 갑은 도덕적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였다.
- ② 을은 예(禮)에 의한 교화를 중시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이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을 중시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통치의 핵심으로 군주의 도덕적 자질을 중시한다.
- ⑤ 갑, 을 모두 성인이 되기 위한 도덕적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다음 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반박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인종 갈등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갑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 A인종의 남자가 B인종의 여자를 성폭행하였고 이 범죄가 원인이 되어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갑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갑의 증언이 특정한 A인종의 남자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갑은 평소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행복이나 불행의 양이라고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었다. 갑은 성폭행범을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폭동을 중단 시키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분명히 허위증언이지만 어떤 한 A인종의 남자를 지목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은?

- ㉠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 ㉡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정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무시하고 유용성만을 중시하면 안 된다.
- ㉢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희생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 ㉣ 언제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 ㉤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 간의 특별한 관계를 포기하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14.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해 옳은 것만을 <보기> 고른 것은? (3점)

갑: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은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
 을: 모든 것은 시비(是非)의 정해짐이 없고, 선(善)이 있는 곳에 불선(不善)이 있고, 앎이 있는 곳에 알지 못함이 있다. 성인의 지혜도 아래에서 보면 지혜이지만, 위에서 보면 무명이다.

<보기>

- ㉠. 갑, 을 모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 갑, 을 모두 수양을 통해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갑은 인간과 동물 모두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 ㉣. 을은 수양을 통해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 ㉡, ㉢ ㉡ ㉢, ㉣ ㉢ ㉣, ㉠ ㉣ ㉠, ㉡, ㉢ ㉠ ㉡, ㉢, ㉣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갑: 백성들에게 하기 쉬운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당하기 싫은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이 저절로 선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기 쉬운 일로서 그들을 길들인다.
 을: 인간의 생물이다. 생물은 하나의 물체이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의 물체이다. 물체인 이상 인간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인식될 수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제 인간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움직임도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욕구와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그것은 '자기 보존'이다.

- ㉠.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 ㉣.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 ㉠ ㉡, ㉢ ㉡ ㉢, ㉣ ㉢ ㉣, ㉠ ㉣ ㉠, ㉡, ㉢ ㉠ ㉡, ㉢, ㉣

(16-17)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무릇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서 이(理)를 구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효의 이를 구한다는 말과 같다. 부모에게서 효의 이를 구한다면 효의 이는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몸에 있는가?
 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는 말은 간단히 생각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여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잠깐 생각이 어긋나도 순식간에 본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므로 심재(心材)를 먼저 그린 것입니다

1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의 일치가 참된 공부인가?
- ㉡ 앎을 쌓아서 본성(本性)을 선하게 바꿔야 하는가?
- ㉢ 이과 기는 떨어질 수 없으며 (理氣不相離) 섞일 수도(理氣不相雜) 없는가?
- ㉣ 도덕적 사고와 행위는 천리인 참된 앎(諒知)이 발현된 것인가?
- ㉤ 도덕의 실천보다 지식이 중요도의 측면에서 우선하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성선(性善)과 인선(人善)은 다르다. 성선은 천부(天賦)의 성이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이를 선으로 잘 함양하면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충만해지고 이를 악으로 키우면 마음이 허전하여 굶주린 듯하니 이는 본성이 순선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인선은 이 성선에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몸을 닦아 끝내는 의리를 행하고 인(仁)을 이루어 그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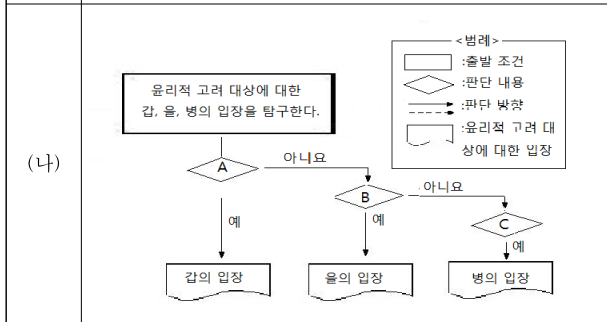
<보기>

ㄱ. 인간의 욕구는 긍정해야 할 대상이자 도덕행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ㄴ. 사덕은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ㄷ. 기질의 욕구를 쫓으면서 악이 쌓이게 됨을 간파하고 있다.
 ㄹ. 선을 좋아하는 성향의 보존이 인의 완성임을 간파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순서도에 들어 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

(가)
 갑: 오늘 당신이 따뜻한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산업자, 제빵업자 등의 도움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 추구에 따른 행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을: 폐광 속에 돈을 집어넣고 그것을 메워 버리는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우선 돈을 묻는 작업을 하는데 일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돈을 파내는 데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려웠던 국가 경제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병: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민중들이 수동적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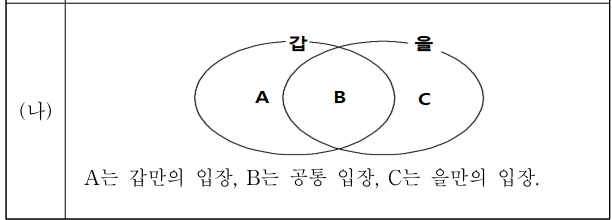
(다)
 ㄱ. A-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는가?
 ㄴ. B- 농업, 수공업 등 중요부문에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가?
 ㄷ. B- 효율성 보다 형평성을 더 중시하는가?
 ㄹ. C-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 할 수 있는가?

- ① ㄴ,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나)는 갑, 을 사상가의 사상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
 갑: 하나의 도덕적 의무는 또 다른 도덕적 의무와 같 등하기 전까지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한다. 그러나 만약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 약한 의무는 사라지고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 의무로 드러나게 된다.

을: 한 사회의 도덕 규칙은 오직 그것의 수용이 다른 어떤 도덕 규칙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가지리라 기대 되는 경우에만 가장 바람직하다. 개별적 행위는 그 사회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도덕 규칙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도덕적으로 옳다.



<보기>

ㄱ. A. 규칙준수의 근거는 의무의식이다.
 ㄴ. A: 절대적인 의무가 존재 한다.
 ㄷ. B: 도덕 규칙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ㄹ. C: 도덕 규칙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갑: 육체의 평화는 각 부분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 배열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성적인 영혼의 평화는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질서가 잘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을: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 즉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즉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병: “무엇인가 너에게 올 때, 손을 뻗어 적절한 몫을 취하라. 그것이 지나가는가? 붙들지 마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향해서 너의 욕구를 드러내지 말고 너의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 ① 갑 :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② 을, 병 : 아닙니다. 신은 이성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③ 갑 :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성만으로는 구원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④ 을 : 동의합니다. 오직 신의 계시와 축복이 있어야 현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⑤ 병 : 아닙니다. 이성적 인식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신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